

네트워크회의
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

한국인 무슬림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

송보라
[프리랜서]

1. 이슬람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한 차별

-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들
- 히잡, 여성인권 등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과 편견에서 시작된 혐오
- 난민 문제에서 비롯한 사회적 불안
- 대구 이슬람 성원 건축을 둘러싼 불화

2. 외국인, 외국 문화가 융화되지 못하는 사회

- 익숙한 일부 외국 문화만을 차별적 수용
- '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'는 자세로 외국인과 그 문화를 존중하지 않음
- 한국의 법이나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이를 비난함

3. 이슬람 = 무슬림 = 외국인(?)

- 이슬람은 외국의 종교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무슬림이어도 괜찮음
- 한국인은 무슬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김
- 외국인이 히잡을 쓰는 것은 괜찮으나, 한국인은 히잡을 써서는 안 됨
- 이슬람의 악습을 따른다 하며 차별

4. 한국인 무슬림 여성들의 피해

- 외국인에게는 언어적 이유 등으로 인해 하지 않을 발언들을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함
- 외형적으로 무슬림을 알 수 있는(히잡) 한국인 무슬림 여성에게 특히 차별적 발언을 함
- 같은 한국인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에게는 그러한 사례가 적음
- 히잡을 쓰고 있으면 취업이 어려움
- 똑같이 히잡을 쓴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취업이 더 쉬운 편임
- 결국 한국인 무슬림 여성들의 절대다수가 히잡을 쓸 수 없는 사회적 구조 형성
- 본인의 선택에서가 아닌 사회적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히잡의 포기